

## 지자체 재정확보 비상

여야 지방세법 처리 합의 부동산취·등록세 등 세수 감소

광주 213억·전남 80억 줄어 들 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여야간 합의로 인해 9월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대한민은 사라졌으나 부동산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는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의 재정지립도는 더 떨어지게 됐다.

열린우리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을 중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당 대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되는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의 재정보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만 지방세원이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재정건건이 열악

한 지자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법안통과 이후 취·등록세를 노리고 아파트 입주시기를 늦춰왔던 시민들과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행정기관의 대한민은 종식됐다.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거래세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B아파트 25평(분양가 약 1억3천만원)의 경우 기존 지방세법에 따르면 570만원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9월부터는 이의 절반인 26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양산동 G아파트 49평형(분양가 약 2억3천여만원)은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광주시와 전남도 납세자들은 1건당 평균 3천950원과 1천200원의 절세 혜택을 각각 보게 된다.

그러나 여야 및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통해 지방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재정 기반이 취약한 광역단체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또 한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단체에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도 정부의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시는 올해만 213억원이, 전남도는 8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광주시 일선 구도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6억원 이상(동구 8천만원, 서구 6억5천만원, 남구 3억5000만원, 북구 3억8천만원, 광산구 5억6천만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제6회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2006  
2006.09.08 ~ 11.11

### D-10 개막 분위기 고조



제6회 광주비엔날레(9월 8일~11월 11일) 개막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작가들의 작품 제작과 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등 개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8일 광주비엔날레에 따르면 중국 작가 장후안씨가 작품 설치 작업을 완료한 것을 비롯, 영상 작품 25건 가운데 18건이 설치되는 등 마지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비엔날레는 개막 이틀 전인 오는 9월 6일까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설치작업을 마치는 등 비엔날레 프레오픈(9월 7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입장권 판매량은 16만장. 비엔날레는 관람객 유치 프로젝트를 가동해 전국 공공

기관, 각급학교를 상대로 막바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흥희 비엔날레 총감독은 "모든 참가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인 명성에 걸맞는 행사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무안기업도시 520만평 우선 개발

출자금 확보 실패...당초 계획보다 57% 축소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국내의 기업들의 투자가 미뤄지면서 이달 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려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1천220만 평을 동시에 개발하

려던 당초의 계획도 전면 수정, 절반에도 못미치는 520만 평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축소됐다.

〈관련기사 3면〉

28일 전남도와 무안군,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무안기업도시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중국과 국내기업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모두 2천94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하러던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무안군은 "중국기업이 무안에 700억 원을 출자하려 했으나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국내기업 출자금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자금 전액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려던 일정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자금 전액 납입되어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중국 산둥성 평라이시(蓬萊市) 소재 고대 항구인 봉래수성(蓬萊水城) 해저에서 출현한 14세기 고려선박(위). 목선인 이 선박은 중국 고대 선박(아래)과 나란히 발견됐다. /연남뉴스

## 14C 고려선박 中해역서 발굴

목포해양유물전시관 확인

14세기 무렵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선박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관련기사 7면〉

문화재청 산하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김성범 관장은 28일 "14세기 중·후반 무렵, 중국 해안에 침몰한 고려 선박 2척이 최근 중국 산둥성(山東省) 소재 고대 항구 유적인 봉래수성(蓬萊水城) 해안에서 발굴, 인양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압도선과 군산 앞바다 십이동파도선 등이 발견됐지만, 한국고대 선박이 해외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선박은 중국 산둥성문물고고연구소와 엔타이시(煙台市) 박물관 등이 지난 2005년 7월 봉래수성 해안 일대 발굴에 대한 조사 결과 발견된 고대선박 3척 가운데 2척으로 봉래 3, 4호선으로 명명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사행성 게임기·상품권 배후 의혹 김태춘씨 돌연 日 출국

폭력 조직의 대부로 통하는 광주 '서방파' 두목 김태춘(58·사진)씨가 검찰이 사행성 게임 배후 의혹 수사를 전면 확대한 시점에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28일 광주지검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 조직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게임기 제조업체 황금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김씨가 지난 달 31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있지만, 이번에는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김·경이 '서방파' 조직원들을 잇따라 처벌하는 등 압박

박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말 인터넷 성인 PC방을 개설해 게임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온 '서방파' 행동대원 백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성인오락실 주인을 납치, 폭행한 서방파의 방계조직 부두목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인천 뉴승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등의 혐의로 징역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86년 이후 수감된 상태에서 폐암 진단이 나와 수감 생활과 형집행정지를 반복해왔다.

김씨는 늘 들어 8차례 출국한 적이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공기관 장학 56년 역사인 전통  
광주 유일의 사립 전문대학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 생원로 101 (062-770-1114) ▶ T.062-770-5000

새로운 담사는 내력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sa.ac.kr  
▶ 생원로 101 (062-770-1114) ▶ T.062-770-5000

국제 무대 데뷔 20주년 기념  
**조수미 광주공연**  
9월 24일(월요일) 오후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 (062)220-0541

보험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금호이슈어하나**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보험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금호이슈어하나**